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164

제안연월일 : 2014. 05.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함

○ 아울러,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 부처 및 인천광역시에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 4월 15일 밤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함

○ 침몰사고로 인하여 승선자 476명 중 구조된 17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사망 또는 실종된 상태이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물론 인천 시민도 36명 중에서 19명만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과 인천시민이 함께 슬퍼하며 전국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찾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정부에서도 구조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구호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을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함

3. 이 송 처 :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4. 첨 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15일 밤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승선자 476명 중 구조된 17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사망 또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물론 인천시민도 36명 중에서 19명만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 해역의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 등 어려운 현지 여건으로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아직까지 실종 상태에 있는 승선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적 재난사건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관계 중앙 부처와 인천 광역시에 촉구 건의합니다.

1. 침몰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한 보상대책 마련과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작업 및 구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 세월호 침몰 당시에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주다가 숨진 인천시민 故정현선씨와 故김기웅씨 등에 대하여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희생자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비 건립 등 각종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3. 침몰사고 관련 특별재난구역 대상지역을 안산시와 진도군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인천시도 추가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거나 또는 모든 보상과 사후대책 등 일체의 지원이 특별재난구역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4.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최악의 해상 참사로 커진 이번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난 안전 구조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4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